

트럼프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
“北 핵 없애면 부자 될 수 있다”
인권 문제엔 “얘기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 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

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많은 사람을 매우 잘 대우하지는 않지만, 나에 대해서는 잘 대접해왔다”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이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면 나도 역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정말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 앵커에게 “오프 더 레코드(비 보도 전제)로 당신에게 편지를 조금 보여 주겠다”며 “매우 좋은 편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은 없었고, 매우 짧은 거리(의 미사일)를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정말로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면서 “그(김 위원장)가 시험한 것은 솔직히 말해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

다. 또 북한이 자국민을 투옥하고 굶주리게 한다는 지적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북한은 경이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김 위원장)가 그것을 해내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북형인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었다는 설과 관련해서는 “내 치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6〉 이사원

이사원(李爾源, 867-933)은 오대십국인 후당의 2대 황제로 후당을 건국한 이준욱의 양자다. 묘호는 명종으로 오대십국 시대 대표적 명군이다. 산서주 대북의 사타족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군무에 종사했다. 무용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으로 군대의 신망이 높았다. 이름은 막길렬으로 이극용이 발탁해 가자(假子)로 삼아 이씨성을 하사받았다. 후당의 이준욱이 장종으로 즉위해 황음과 사치를 일삼았다. 사천 공략을 성공시킨 장군 곽승도를 환관의 말에 속아 죽였다. 환관을 군대를 감독하는 감군(監軍)으로 임명해 반발을 초래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장종은 이사원에게 업도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반란군의 지지를 얻어 지

군대의 원성을 산 감군을 주살했다. 황제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군대에 무리한 짓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다. 궁녀 100명, 환관 30명, 음악인 100명, 매사냥꾼 20명, 주방 50명으로 대폭 인력을 줄였다. 매일 밤 향을 피우고 하늘에 축원하기를 “저는 오랑캐인으로 반란 때문에 사람에게 추대되었습니다. 원컨대 하늘은 빨리 성인을 낳아 백성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어느날 풍도에게 “금년에 풍년이 들었지만 백성들은 먹고 살만한가?”라고 하문했다. 풍도가 답하기를 “농가는 그 해에 흉년이 들면 유민이 되어 굶어 죽고, 그 해에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떨어져 손해를 봅니다. 풍년이란 흉년이란 모두 근심이 되는 것이니, 오직 농가만이 그러합니다. 농민은 백성 중 가장 고생하므로 군주가 이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후당 2대 황제, 오대십국 대표적 명군

도자로 추대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반군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실패했다. 측근 석경당은 “무릇 일이란 과감하게 결정하면 성공하고 머뭇거리면 실패합니다”라며 그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의성 역시 “장종이 무도해 군사와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공은 백성을 따르면 살고, 절의를 지키면 죽을 면교사로 삼은 것이니. 그러나 빈번한 하사로 군대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재위 8년인데 자주 풍년이 들었고 전정은 드물었다. 다른 왕조와 비교해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명종이 위중해지자 후계 경쟁이 심화되었다. 장남인 이종경은 이미 죽었다. 차남 이종영이 부친을 병문안 갔다.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부친이 사망한 것으로 짐작했다. 황위 승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명종은 살아있었고 그는 반역죄로 주살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3남인 이종후가 즉위하니 민제다. 그에겐 명종의 양자인 봉상절도사 이종기와 사위인 하동절도사 석경당이라는 범상치 않은 라이벌이 있었다. 결국 즉위한 다음해인 934년 이종후에게 정권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 이종기는 구오대사에서 별제로 불리었다.

사타족 평민 출신으로 매우 솔직한 군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실패했다. 측근 석경당은 “무릇 일이란 과감하게 결정하면 성공하고 머뭇거리면 실패합니다”라며 그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의성 역시 “장종이 무도해 군사와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공은 백성을 따르면 살고, 절의를 지키면 죽을 면교사로 삼은 것이니. 그러나 빈번한 하사로 군대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재위 8년인데 자주 풍년이 들었고 전정은 드물었다. 다른 왕조와 비교해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명종이 위중해지자 후계 경쟁이 심화되었다. 장남인 이종경은 이미 죽었다. 차남 이종영이 부친을 병문안 갔다.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부친이 사망한 것으로 짐작했다. 황위 승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명종은 살아있었고 그는 반역죄로 주살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3남인 이종후가 즉위하니 민제다. 그에겐 명종의 양자인 봉상절도사 이종기와 사위인 하동절도사 석경당이라는 범상치 않은 라이벌이 있었다. 결국 즉위한 다음해인 934년 이종후에게 정권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 이종기는 구오대사에서 별제로 불리었다.

“핵전력 국가 위상 드높이는 첫 걸음”...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 내부 설득 주력

VOA, 강연자료 입수해 공개
비핵화 조치 명분·당위성 홍보

북한이 성공을 자신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이라며 비핵화 협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당위성 선전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군 장성 및 장교용 강습제강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 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실질적인 핵 폐기의 수순을 밟을 것에 대

공고히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금 미국놈들이 우리의 핵전력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려고 다음 단계의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 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실질적인 핵 폐기의 수순을 밟을 것에 대

비해 사전에 장교 이상 군 지휘관들에게 그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홍보해 ‘핵 포기’ 선택의 충격을 누그러뜨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군인과 주민들에게 핵무력 완성과 함께 핵보유국의 자긍심을 주입해 왔던 만큼 이와 상반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납득할만한 논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지난 3월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었다”며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을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

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수천통의 청원 편지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과 군수공업, 기득권과 일반 주민들도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하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능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협상을 하는 와중이었으니까 핵을 버린다 하더라도 핵 국가의 능력은 유지되고, 전략 국가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설득 용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핵 무력을 완성했는데 왜 버리느냐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주민들에게는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홍콩 관료·의원들 “송환법 사실상 폐기”

홍콩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한 홍콩 정부 소식통은 SCMP에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송환법은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얘기다. 지난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전날 20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은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홍콩 시민에 사과했다. 캐리 램 장관은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향후 입법 활동을 재개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했다. 홍콩 언론은 이날 시위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